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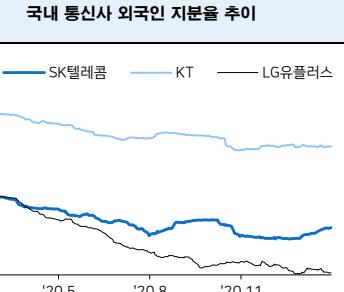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2.8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KOSPI	4.9	-1.0	29.1	32.7	14.9	14.9	1.2	1.2	1.6	1.6	
통신업종	4.9	-1.4	10.9	9.8	9.4	9.4	0.7	0.7	4.1	4.1	
SK텔레콤	5.9	3.2	13.9	17.2	15.7	10.6	0.9	0.8	3.9	4.0	
KT	0.4	0.2	5.0	1.1	9.1	7.5	0.4	0.4	4.7	4.9	
LG유플러스	6.3	3.3	7.2	10.4	7.7	8.3	0.7	0.7	3.3	3.7	
AT&T	1.0	-1.1	5.2	-3.1	9.2	9.5	1.1	1.2	7.2	7.2	
Verizon	1.0	-5.6	-4.9	-3.9	11.4	10.9	3.3	3.0	4.5	4.6	
T-Mobile	-0.6	-5.0	6.8	16.1	44.0	45.8	2.2	2.5	0.0	0.0	
NTT	4.6	-0.1	19.4	9.1	11.8	10.8	1.1	1.2	3.5	3.7	
KDDI	6.3	3.9	9.5	1.8	12.0	11.5	1.7	1.6	3.5	3.7	
Softbank	12.0	11.8	35.1	38.7	N/A	8.3	2.3	2.4	0.5	0.5	
China Mobile	-0.8	0.5	-7.6	-13.2	7.4	7.2	0.7	0.7	7.4	7.5	SKT 35.4% (+0.3%p WoW, +1.1%p MoM)
China Unicom	0.9	-12.4	-14.1	0.0	8.9	7.8	0.3	0.3	4.5	5.0	KT 43.8% (-0.1%p WoW, -0.2%p MoM)
China Telecom	-0.9	0.0	-12.5	-3.0	7.0	6.9	0.4	0.4	6.1	6.5	LGU+ 30.1% (-0.2%p WoW, -0.1%p MoM)
											SK텔레콤 외국인 순매수 4주 연속 지속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SKT 35.4% (+0.3%p WoW, +1.1%p MoM)
KT 43.8% (-0.1%p WoW, -0.2%p MoM)
LGU+ 30.1% (-0.2%p WoW, -0.1%p MoM)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2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와 동일한 +4.9%p 수익률을 기록하며 Marketperform 2021년 낙관적 전망을 발표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주가 긍정적 흐름 지속 2020년 5G 가입자는 아이폰12 출시, 5G 요금제 출시 효과로 1,185만명으로 마무리 국내 기관은 KT, LGU+ 순매수, SK텔레콤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 순매수, KT, LGU+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9일 KT 4Q20 실적 발표 예정 KT의 4Q20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 AT&T는 C-band 주파수 할당을 위한 자금 마련, C-band 장비업체 선정 임박 삼성전자의 AT&T 장비 수주 여부에 따라 5G 통신장비 섹터 센티멘트에 지대한 영향 전망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1	1	2	3	4	5	6
			SKT 4Q20 실적발표 LGU+ 4Q20 실적발표			

3 주간 뉴스

▶ 美 AT&T 5G 장비공급 '큰 징' 선다…수주 공들이는 삼성전자

(조선비즈)

- 2월 중 미국 3대 통신사 중 마지막 남은 대어인 AT&T가 5G 이동통신 장비사를 선정할 것으로 추정
- 삼성전자는 작년 버라이즌과 7.9조원 규모 수출 계약은 성공했지만 연초 T모바일 수주전에서는 고배
- 삼성전자가 AT&T가 원하는 3.7GHz 주파수 대역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정 기대감 확산
- ⇒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투자 시 2~3곳 정도 복수로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지역별로 설치·관리를 배분
- ⇒ AT&T는 기존 애릭슨과의 계약 바탕으로 애릭슨·노키아·삼성전자, 애릭슨·노키아 중 선택 전망

▶ 아이폰12 효과?… 지난해 5G 가입자 1185만명

(조선비즈)

-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185만 1373명으로 전월 대비 91만 9010명(8.4%) 증가
- 통신업계가 작년 제시했던 목표치 1500만명에는 못 미치지만, 하향 조정한 목표치 1200만명 근접
- 10월말 출시된 아이폰12의 힙행이 이어지면서 5G 스마트폰과 5G 요금제 경쟁이 치열해진 결과
- ⇒ 통신 3사의 5G 저용자 요금제 출시와 '갤럭시S21' 등 5G 단말 라인업 확대로 5G 가입자 증가 예상
- ⇒ 5G 가입자 증가로 인해 2021년 무선 ARPU 성장 추세가 지속될 전망, 향후 통신 3사의 실적에 긍정적

▶ 한전 "전봇대 사용료 17% 인상…통신사 '일방통보' 당혹

(전자신문)

- 한전, 전주 설비대가를 케이블 가닥당 753원에서 약 17% 인상한 882원 부과하겠다고 통신사에 통보
- 전주는 통신사가 광케이블과 구리케이블 등을 가정에 연결해 인터넷, IPTV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설비
- 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케이블TV 등이 한전 전주를 이용
- ⇒ 통신 3사는 케이블 가닥당 129원이 인상될 경우 3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이는 통신 3사 입장에서 5G 투자비용 세액공제 맞먹는 수준으로 정부에 종재·제도 개선 요청 전망

▶ AT&T borrows \$14.7 billion to buy spectrum

(Telecoms)

- AT & T, SEC Form 8-K 제출로 Bank of America에 147 억 달러의 기간 대출 신용 확보 공개
- FCC의 C-band 경매는 1월 중순 주파수 입찰에서 기록적인 811 억 달러의 입찰로 마무리
- 주파수 할당 단계가 월요일부터 진행될 예정, 경매 총액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지는 않을 전망
- ⇒ AT & T가 C- 밴드 스펙트럼 및 향후 5G 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
- ⇒ AT&T가 곧 5G 장비사를 선정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삼성전자가 수주전에서 성공할지 관심 귀추

▶ 무궁화가 5G 받아 동남아로… KT, 인공위성으로 5G 취약지역 뚫는다

(서울경제)

- KT SAT, '무궁화위성 5A호'를 활용한 '5G 백홀링(backhauling)' 네트워크 기술 테스트에 성공
- 기지국 건설이 어려운 동남아시아 등 인프라 취약 지역에 5G를 확산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
- 5G 백홀링은 위성이 지구에서 발신된 5G 신호를 수신, 지구상의 취약 지역으로 재전송하는 기술
- ⇒ KT SAT의 무궁화위성 5A호는 현재 동북아시아, 필리핀,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서비스 제공
- ⇒ KT는 인공위성을 통해 5G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취약 지역의 5G망을 보완하고 통합할 계획

▶ 국민 3명 중 2명은 OTT 본다

(ZD Net Korea)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OTT 이용률은 66.3%로 2019년 52.0% 보다 14.3%p 증가
- 점유율은 유튜브 62.3%, 넷플릭스 16.3%, 페이스북 8.6%, 네이버TV 4.8%, 아프리카TV 2.6%
- OTT 시청자의 94.8%는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TV를 필수 매체로 여기는 비중은 30% 이하
- ⇒ OTT의 부상으로 미디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에서 디지털 구독으로 변동될것으로 전망
- ⇒ 2021년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는 6.06조원으로 COVID-19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회복할 전망

4 주요 지표

(심의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258,500	18.7	17.4	18.1	1.3	1.4	1.7	2.1	5.0	5.1	5.4	5.3	7.9	9.0
	KT	24,050	5.6	22.1	22.7	1.2	1.3	0.7	0.8	4.6	4.6	2.4	2.4	5.8	6.4
	LG유플러스	12,700	5.0	12.6	13.1	0.9	1.0	0.6	0.7	3.1	3.3	3.2	3.1	8.5	9.3
미국	AT&T	28.9	206.2	173.3	174.4	32.2	33.2	22.0	22.7	52.8	55.8	7.0	6.6	12.9	13.3
	Verizon	55.3	228.9	133.0	135.4	32.0	32.9	21.0	21.7	48.8	49.8	6.9	6.8	31.4	35.5
	T-Mobile	125.3	155.6	78.2	80.5	7.8	10.1	3.4	4.9	27.1	28.8	8.2	7.7	5.7	6.3
일본	NTT	2,739	101.4	110.7	112.0	15.3	15.6	8.7	9.8	29.5	29.7	6.0	6.0	90.8	12.9
	KDDI	3,274	71.6	50.0	51.0	10.0	10.1	6.2	6.3	16.9	16.9	5.1	5.2	14.4	13.7
	Softbank	9,081	180.1	57.3	56.4	17.5	8.6	18.9	5.7	25.0	15.2	11.3	18.5	34.2	9.3
중국	China Mobile	46.9	123.9	121.8	126.3	18.3	18.7	17.1	17.6	45.5	46.9	1.4	1.3	9.3	9.2
	China Unicom	4.4	17.4	48.4	50.6	2.2	2.6	2.3	2.6	15.4	15.8	1.2	1.2	4.4	5.0
	China Telecom	2.2	23.4	62.8	65.3	4.7	5.0	3.5	3.8	19.1	19.7	1.8	1.7	6.2	6.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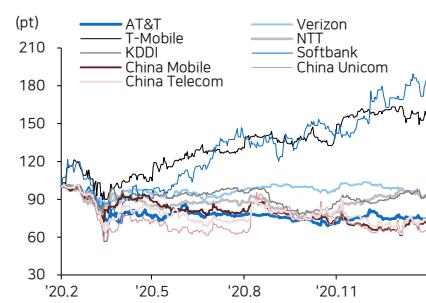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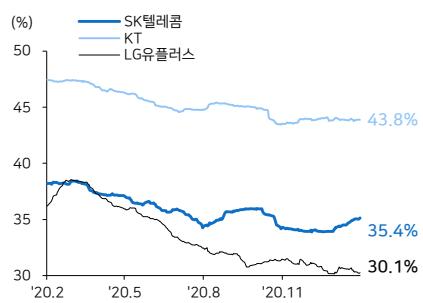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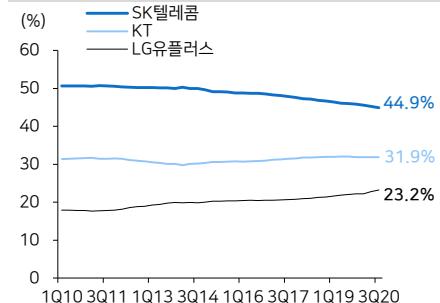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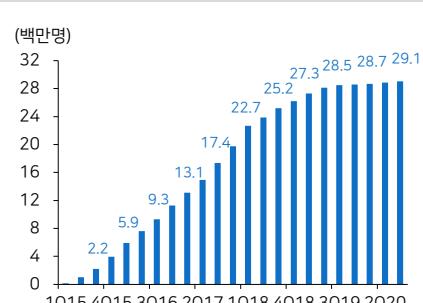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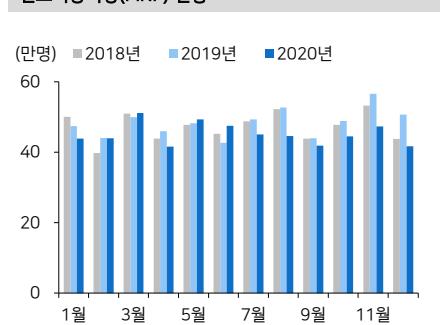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회원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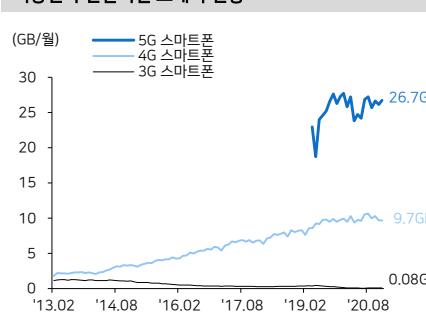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